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교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아버이주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다면 분명히 독자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참으로 사랑했고, 이삭의 기질과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흔적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삶의 궁극적인 아버지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이삭의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번제로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기질과 은사가 잘 꽃피울 수 있도록 자상한 배려와 훈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도 잃고 자녀들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한 복의 근원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이 주일에 서울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이런 믿음과 복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제15대 집사 · 제14대 권사 후보 확정

5월 15일(주) 공동의회 - 찬양예배 후

우리 교회 당회는 5월 6일(금) 열린 정기당회에서 서울교회 운영규정 제5조 3항(2012년 12월 26일 개정)에 의거 제15대 집사 40명과 제14대 권사 80명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를 각각 60명과 119명으로 확정하였다. 후보 사진과 신앙경력 등이 게재된 명단은 오늘 배부된다.

집사의 자격은 만 35세 이상 된 남자(주민등록상 1981년 5월 15일생 포함)로서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 이상 경과한 서리집사 및 협동집사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서리집사로서 3년 이상 봉사한 자(2013년도 서리집사 임명자 포함)이어야 하며, 디모데전에서 3:8~13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덕이 있고, 봉사에 모범된 자로서 주일 찬양예배 및 수요일예배 참석에

힘쓰는 자이어야 한다.

권사의 자격은 50세 이상 된 여자(주민등록상 1966년 5월 15일생 포함)로서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 이상 경과한 서리집사 및 협동권사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서리집사로서 3년 이상 봉사한 자(2013년도 서리집사 임명자 포함)이어야 하며, 디모데전에서 3:3~1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덕이 있고, 심방과 봉사에 모범된 자로서 주일 찬양예배 및 수요일예배 참석에 힘쓰는 자이어야 한다.

이명해 은 타교회 항존직인 경우에는 본 교회 등록 2년 이상 된 자(2014년 5월 15일 등록자 까지)이어야 한다. 2016년도 은퇴예정자 및 최소 시무기간

이 2년 이상 남지 않은 사람은 집사, 권사 후보 자격에서 제외된다.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는 5월 15일(주) 찬양예배 후 본당 2층에서 모인다. 집사와 권사는 공동의회 투표인 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피택된다. 동점자 처리는 연장자, 수세연도, 교회등록일 순으로 한다. 본 교회의 18세 이상 등록된 세례교인(세례, 입교, 개종)은 누구나 공동의회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서울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협력하기 바란다.

5월5일 (목) 베델하우스에서 열린 청년부 체육대회



이종운 원로 목사의 크리스찬의 신앙곡선

성경에 나타난 교회 형태

(벤전 2:9)

성경신학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다음과 같이 이해했다.

1. 교회는 하나님의 계약백성이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The covenant people of God)이다. 이것은 벤전 2:9에서 말씀하신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계약의 백성이라는 말씀이다. 이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이고 이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약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파기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못해서 파기된 계약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이방인들과 죄로 인해 계약을 파기했던 유대인들은 은혜 밖에 놓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택하셨고, 이것을 교

회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계약 안으로 선택해 주심으로 우리는 계약의 관계 속에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계약'과 '선택'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며 그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

2. 교회는 메시아의 나라(몸)이다

공관복음서의 대주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King and his Kingdom)'이다. 신약에서는 특별히 이 '메시아의 나라' 또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말한다. '메시아의 나라', '새 이스라엘'은 구약에서도 약속되어 있다. 구약의 계약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성별(Distinctiveness)과 선교(Mission)이다.

성별은 하나님의 요구이다. 성별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구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과 안식일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제사를 깨끗이 성별하여 드려야 한다.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은 세상과 성별되어야 한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심은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은 세상에 봉사하시기를 원하시며, 이것

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다. 하나님은 성도들끼리만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한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

3. 교회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다

성령의 사역 가운데 교통하심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설교자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듣는 사람의 심령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며 이것을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성령은 자기의 교회를 위해서 예배와 교육과 봉사(선교)를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신다.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유지된다. 교회는 말씀 봉사(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직분)를 통해 유지된다. 교회는 질서 봉사(그리스도의 왕 되신 직분)가 있어야 유지된다. 교회는 자비 봉사(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를 통해 유지된다.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다. 교회에 당회, 제직회, 집사, 권사 등의 조직과 직분이 있는 것은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함이며 이 조직은 사랑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메시아의 나라로,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세상의 모든 교회는 깨끗한 교회, 질서있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다음 주 계속)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환영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은 어린 아이들의 특별한 가능성이 표현되고 지지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찬양예배 시에 교육1국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어린이들의 특별하고도 희망 찬 찬양의 고백을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유아부(지휘: 정상준 선생, 반주: 신아령 집사)는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외 1곡을, 유치부(지휘: 송채원 선생)는 성경 암송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외 2곡을, 유년부 앤젤스(지휘: 홍소희 김나형 백지연 선생)는 "우리는 항상", 초등부 글로리아(지휘: 이예원 선생)는 "Higher"를, 유·초등부 연합 찬양대(지휘: 유수진, 박수련 선생, 반주: 양혜선, 권보화 선생)는 "주님이 주신 이 노래" 외 2곡을, 마지막 순서에서는 유년·초등·유초등연합2부(지휘: 홍소희 김나형, 백지연 이예원 최희연 서 윤)가 연합하여 "은 세상이 찬양 해"를 찬양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수은 전도사(유년부, 유초등연합2부 지도)

교구별 체육대회

- 5월 14일(토) : 2교구 - 선정릉
- 3교구 - 양재시민의 숲
- 9교구 - 베델하우스
- 10교구 - 올림픽공원
- 12교구 - 수지 한일 센터
- 13교구 - 양재 시민의 숲
- 15교구 - 선정릉

B.M.W. 운동



어버이 주일

먼저 주고 남는 것 먹어라



박상희 성도 (9교구, 화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다. 아버지는 마당을 쓸고 대문을 활짝 열어 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 가족들 모두 아침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으려면 대문 앞에 바가지를 든 거지 할머니가 나타났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따뜻한 밥과 반찬을 할머니의 바가지에 담아드린 뒤 아침

밥을 드셨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혼자 말씀으로 "그 노인이 요즘 왜 안보이지. 어디 아픈가? 밥이 다 식는데..." 라고 하셨다. 어머니가 부엌의 부뚜막에 놓아두신 밥 한 그릇이 그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눈치챘다.

이틀쯤 지난 아침, 병색 짙은 모습으로 할머니가 대문 앞에서 있었다. 어머니는 마루로 모셔와서 따뜻한 밥과 국을 차려드렸다. 무척 배가 고팠는지 고개를 숙인 채 쉬지 않고 밥을 드셨다. 어머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왜 이리 힘들게 됐나요?" 하고 물으셨다. 그제야 수저를 멈추고 전쟁 때 남편과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데다 몸도 병들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말을 멈춘 후 때에 전 저고리 소매로 눈물을 한 번 훔치고 다시 밥을 먹던 기억이 난다.

어머니는 혀를 찌웃 차시며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입던 옷 한 벌을 들고 나오셨다. "제가 입던 옷인데 깨끗하게 빨아 놓은 거니 입으세요"라면서 보자기에 싼 옷을 할머니 옆에 밀어 놓으셨다. 할머니가 밥을 다 드신 후 수저를 놓자 어머니는 부엌에 가서서 숟가락 한 그릇을 가져오셨다. "혹시 교회에 가본 적 있어요? 하나님을 한 번 믿어 보실래요? 교회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곳에서는 가



박상희 성도 작 『은혜』 :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를 감사하며 그린 그림

난한 사람한테 먹을 것과 옷도 줘요. 내일이 주일인데 함께 가보실래요?" 할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어머니는 "내일 오금다리 앞에 있는 교회에서 만나요" 하며 약속을 하셨다. 옷을 싼 보자기를 할머니한테 안겨주며 "잠깐만요, 제가 신던 고무신도 드릴게요" 라고 하시면서 보자기를 풀어 깨끗이 닦아놓은 흰 고무신 한 켤레도 넣어주셨다. 할머니가 일어서자 어머니가 "내일 꼭 이 옷 입고 오세요"라며 약속을 반복했던 기억이 난다.

하룻밤 지나 주일 아침이 되어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갔을 때 그 할머니께서 어머니가 입던 옷을 입고 앉아 계셨다. 어머니가 손을 잡고 "잘 오셨네요"라고 하자 할머니는 옆에 있던 나를 보고 빙긋이 웃으셨다. 나는 아침마다 동남 하러 온 할머니를 더럽다고 저만치 피하곤 했었다. 하지만 교회에 앉아 있는 할머니는 거지가 아닌 이웃에 사는 따뜻한 할머니의 모습이

었다. 이후 주일마다 교회에서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반년쯤 지났을까, 할머니가 안 보여 어머니께 여쭙보니 이미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고 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니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귀했는가를 깨닫게 된다.



어머니 고(故) 김단승 권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을 헌신과 사랑으로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셨다. "내가 먹고 남주려면 못 주는 것이다. 먼저 주고 남는 것으로 내가 먹어야 남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다"라고하신 어머니의 말씀이 교훈이고 진리였음을 깨닫는다.

불쌍한 자를 위한 어머니의 깊은 배려와 사랑은 지금 이 시간도 멈출 수 없는 감동의 메아리로 내게 남아 있다.



더 없이 값진 선물 부모님

김신영 집사 (12교구)



사랑하는 아버지께,
아버지 저 큰딸 신영이에요. 한 해를 시작하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봄의 끝자락인 5월이에요.

아버지날이라 학교 다닐 때 말고는 편지를 써본 기억이 없네요. 오랜만에 펜을 들더니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할지... 지금은 부끄럽고 그동안 아무것도 못 해드린 것 같아 죄송스럽기까지 합니다.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신지 벌써 12년이랑 해가 지났네요. 그 사이 우리 삼남매 중 오빠는 장가 가서 새언니, 하준이, 은준이 지금 뱃속에 셋째 기쁨이까지. 동생도 제부를 만나 이안이를 낳고 가족이 이만큼 늘었네요.

12년이랑 시간동안 우리를 길러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조카들이 많이 생겨 아버지가 웃으시는 날이 많아진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훈남이신 우리 아버지 얼굴에 요즘 부쩍 주름이 는 것 같아 속상해요. 그래도 조카들 봐주실 만큼 건강하시고 늘 밝게 사시는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제게 아버지는 스승이자 믿음의 선배님이십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고 가족을 위해 명절때는 예배로 시작하시고 가족 대·소사에 기도문을 작성해 읽어 주시는, 우리에게겐 더 없이 값진

선물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통해 감사와 헌신을 배웁니다.

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게 하고 그 가정에 저를 보내주셔서 누구보다 부족함 없이 길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순종을 가르쳐주신 나의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의 순수한 믿음과 매일 눈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 두 분의 기도로 우리 삼남매 이렇게 잘 자라게 하심,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주신 사랑만큼은 못하지만 이제 저희에게도 조금씩 기대세요. 조카들 재롱도 보시고 항상 지금처럼 주님과 동행하시며 말씀 안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곁에 계셔 주세요. 늘 주님을 찬양하며 곁에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처럼 말씀과 기도로 살겠습니다. 어머니처럼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길러주신 나의 아버지 어머니 영원히 사랑합니다 ♡♡♡

2016년 5월 8일
누구에게나 가슴 한 켠이
아려울만큼 감사한 아버지날,
큰 딸 신영 올림.



찾난 어린양 주일 오모뵈보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5월 14일(토) 7개 한국 신학회 회장단 접견을 한다.
- 주일식당봉사 : 루디아·도르카 전도회(5.1) 이삭 선교회(5.18)
- 금주의 식사 제공 : 교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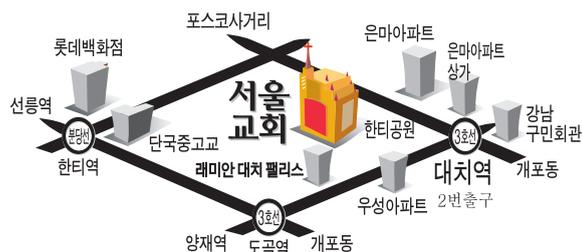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아버지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2. 교구별 체육대회를 통해 다락방과 교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3. 5월 15일에 있는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잘 준비되어 주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II, III, IV 층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짧은이 예배	오후 2시	웨스트민스터 홀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